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2년 1분기(1,2,3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2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에는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2주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 현안들이 외면한 지역의 목소리를 주목하거나, 현안들 속에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보도들이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으로 올랐습니다.

후보작들은 지역기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역의 노동자·장애인 목소리 대변, 문화재·재개발 갈등 해결 모색 등으로 모두 지역성에 기반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언론인들의 노력의 흔적이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이러한 노력이 우리 지역사회를 반드시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2022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는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 위험 'E'등급 충격>,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곳에 쌓인 돈 2조>,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을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 'E'등급 충격> 외 2건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역성과 현장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발굴 의제였을 뿐 아니라 2020년 보고서를 근거로 붕괴위험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부산시와 영도구의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곳에 쌓인 돈 2조>는 부산과 대구의 순세계잉여금 추적을 통해 적극적 행정·예산집행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 취재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 외 5건은 이례적으로 경남 소식이지만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 2호 처벌 대상에 대한 주목이 높았던 가운데, 노동자 집단 중독 사고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다각도로 문제를 조명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2022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추천작 목록

번호	매체	제목
1	국제신문	[신년기획]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박호걸·신심범 기자)
2	국제신문	[대선기획] <대선...부산MZ세대 속마음>(조봉권·배지열 기자)
3	부산일보	<부산은행, 저신용자 대출 금리 대폭 인상 '지역 상생 외면'> 외 2건 (김형 기자)
4	부산일보	<확진자 3명 중 1명, 서울에서 나왔다> 외 2건 (김백상·황석하·곽진석 기자)
5	부산일보	<“나도 QR 찍고 싶은데”...방역패스 '장애인 패싱'>(안준영·김동우 기자) <“장애인은 투표함도 못 봤는데” 턱 높은 참정권>(김동우 기자) <탈 수 있는 시내버스 29%...이동권 막힌 부산 장애인>(나웅기 기자)
6	KBS부산	<20대 취업 준비생 '일곱 달의 악몽'> 외 3건(김계애·정민규 기자)
7	KBS부산	<테마파크 짓는다더니 '놀이동산'...추가 개발은?> 외 2건 (이상준·김영록 기자)
8	부산MBC	<장애인인권운동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외 1건(정은주 기자)
9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위험 'E'등급 충격> 외 2건(송광모·김유나 기자)
10	부산MBC	[기획] 뉴스풀-뉴스를 풀어드립니다 <문화재와 재개발의 '공존'...방법 없을까?> 외 1건(김유나 기자)
11	부산MBC 빅벙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공간에 쌓인 돈 2조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한다
12	부산MBC 빅벙커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역을 위한 공약은 없다
13	부산MBC 시사포커스IN	<234 억 날린 '온라인 화상 회의실'>(조재형 기자)
14	KNN	<집단 중독사고, 유해물질 주먹구구 관리 확인> 외 4건(김민욱 기자)

■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 위험 'E'등급 충격> 외 2건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아름다운 풍경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부산MBC 문제제기로 수면 위로 올랐다



부산MBC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부산의 대표 관광지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의 안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영도를 다녀간 수많은 카메라가 영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왔던 것과 달리, 부산MBC는 영도의 특수한 지형과 지반의 위험성을 담아냈습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 뒤에 숨겨진 붕괴위험 'E'등급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부산MBC의 취재로 수면위로 올랐습니다.

해당 보도는 2011년과 2018년 붕괴사고 사례를 통해 영도가 상습 붕괴지역임을 언급했고, 이어 취재 결과 확보한 2020년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우기, 건기를 가리지 않고 마을 전체가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안심 관광지'라며 관광객몰이만 했을 뿐, 대책은 나 몰라라 한 부산시와 영도구의 행정엔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의 붕괴 위험을 드러낸 해당 보도는 끝으로 재해 민감도가 높은 급경사지가 부산에만 모두 269곳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붕괴 위험이 영도에 국한된 사안만은 아님을 짚기도 했습니다. '안심 관광지'라는 홍보 문구가 무색하게 붕괴 위험 'E'등급을 받은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의 안전 실태를 고발한 해당 보도를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부산MBC·대구MBC 빅뱅커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공간에 쌓인 돈 2조

남은 예산부터 우암동 목욕탕 건립까지  
세금의 주인으로 선 주민 조명한 예산추적 프로그램 빅뱅커



부산MBC·대구MBC 빅뱅커는 1월 6일, 13일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공간에 쌓인 돈 2조>를 방송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지자체 공간에서 잠자고 있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추적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생소한 순세계잉여금을 충실히 설명하고, 예산이 남는 이유도 다각도로 조명해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어 방송은 여러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순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에도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주민들이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지서비스라는 추상적이고도 큰 개념을 코로나19 사각지대, 필수노동자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같은 구체적 서비스 사례 제시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산을 남긴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필요로 하고, 단순히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주민과 정당의 목소리에 대한 조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했고, 세금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부산과 대구의 다양한 움직임을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2022년 1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 외 5건

사건 아닌 사람, 발생 아닌 재발방지에 주목한  
KNN 노동자 급성중독 보도



‘경남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은 한 명의 노동자가 중독됐던 2월 10일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 판정을 받으면서 ‘중대재해법 첫 직업성 질병’이라는 주목 속에서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언론의 관심은 사건 발생 이후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KNN은 ‘경남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태의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KNN은 노동자의 피해 상황과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 등을 꾸준히 보도했고, 업체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도 추가로 문제제기해 지역 노동환경 감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KNN의 보도를 통해 특수검진에서 빠진 간 기능 검사, 위험의 외주화, 공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2미터 옆 공정 노동자는 임시건강 진단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보다는 ‘처벌’에 초점 맞춘 보도 일색이었던 2022년 1분기, 산업재해에 대한 KNN의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보도를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2022년 1분기 보도·프로그램 목록]

■ 부산MBC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 위험 'E'등급 충격> 외 2건

<부산 대표 관광지 붕괴위험 'E'등급...충격>(3/21)

<붕괴위험 최고등급인데...'안심 관광지?'>(3/21)

<https://www.youtube.com/watch?v=69bxDE-ugvY&t=15s>

<'골든타임' 놓친 보강공사...“전면공사 힘들다”>(3/22)

<https://www.youtube.com/watch?v=Ov-Vm0REovI>

■ 부산MBC·대구MBC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공간에 쌓인 돈 2조

[1부] <2020 코로나 팬데믹에도 공간에 쌓인 돈 2조>(1/6)

<https://www.youtube.com/watch?v=7aURd4yp8rA&t=810s>

[2부]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한다>(1/13)

<https://www.youtube.com/watch?v=xOV1gAKNGP8>

■ KNN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 외 5건

<급성중독 16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2/18)

<https://www.youtube.com/watch?v=te1G9Cm77OY>

[단독] <“기준치 3배” 간 수치, 업무상 질병 반복 이유는?>(2/21)

<http://www.knn.co.kr/254126>

<집단 중독사고, 유해물질 주먹구구 관리 확인>(2/23)

<https://www.youtube.com/watch?v=Bpus7lgksYY>

<예견된 중독사고...필수시설도 없어>(2/24)

[https://www.youtube.com/watch?v=gNp\\_CUR03dl&t=6s](https://www.youtube.com/watch?v=gNp_CUR03dl&t=6s) (5분 37초부터)

<작업 중지 명령에 외주화...노동부가 외면>(3/10)

<https://www.youtube.com/watch?v=Kz0wxAppncY>

<급성 간중독 진단...2미터 옆은 제외?>(3/17)

<https://www.youtube.com/watch?v=lxQQrnS3PL8>

## ■ 2022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매체 순)

국제신문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는 ‘국제신문의 신년기획으로, 국제신문은 2022년을 시작하며 코로나 전후 삶의 질 격차 분석을 기획으로 내놓았습니다. 감염을 우려해 여행을 줄인 계층과 고기반찬을 줄인 계층을 보여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진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푸드뱅크 마켓 예산 등을 짚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순한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심리, 관계 등의 격차도 함께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부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전문가의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보도] <"월 70만 원 벌던 수입 2만 원까지 줄어...고기 반찬 끊었죠">(1/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103.22003000269>

국제신문 <대전...부산MZ세대 속마음>은 국제신문의 대선기획으로 이 기획은 대학언론 인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와 부산 지역 4개 대학 학보사가 함께 했습니다. 부산지역 대학생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며, 단순 수치나열의 여론 동향이 아닌 인식조사를 통해 후보와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청년세대에 주목해 청년과 함께 지역청년 문제를 취재한 좋은 사례입니다. 다만 대학생 중심의 MZ세대 호명과 내용면에서의 지역성 담보 미흡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대표 보도] 대전...부산 MZ세대 속마음 <2> 공약을 보는 대학생의 시선(2/16)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20216.22005003127>

부산일보 <부산은행, 저신용자 대출 금리 대폭 인상 ‘지역 상생 외면’> 외 2건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서민과 달리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BNK부산은행에 주목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이자순수익 1조 원에 달하는 BNK부산은행에 지역과의 상생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사설을 통해 ‘부산은행의 탐욕과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NK 금융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수백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짚기도 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책무가 있습니다. 또 최근 부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책무에 비해 지역언론의 감시·비판은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지역언론의 충실한 비판·감시를 기대합니다.

[대표 보도] <부산은행, 저신용자 대출 금리 대폭 인상 ‘지역 상생 외면’>(1/12, 6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1119133735957>

부산일보 <확진자 3명 중 1명, 서울에서 나왔다> 외 2건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 특정 대도시가 나라 전체의 감염 확산세를 주도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와 자원이 기형적으로 한 도시 ‘서울’에 집중된 결과라 분석했습니다. 부산일보는 해당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도시 계획을 전염병 감염 위험을 낮

추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주장이고, 지역언론이 낼 수 있는 메시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의 이러한 메시지는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진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표 보도] <확진자 3명 중 1명, 서울에서 나왔다>(1/20, 1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1919273464617>

**부산일보 <“나도 QR 찍고 싶은데”...방역패스 ‘장애인 패싱’> 외 2건**은 1월부터 3월까지 한 건씩 있었던 장애인 인권을 조명한 기사들입니다. 방역패스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1월에는 방역패스가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현실을 짚었고,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장애인들은 늘 ‘대리투표’의 위험을 감수해 온 현실을 짚었습니다. 또 최근 서울지하철 장애인 시위가 공론화하면서 부산일보는 부산의 장애인 이동권 사정을 보도하며, 실태조사조차 없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보도 목록]

<“나도 QR찍고 싶은데”...방역패스 ‘장애인 패싱’>(1/7, 6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0619171760237>

<“장애인은 투표함도 못 봤는데” 턱 높은 참정권>(3/8, 2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0717433594963>

<탈 수 있는 시내버스 29%...이동권 막힌 부산 장애인>(3/29,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2819441194224>

**KBS부산 <20대 취업 준비생 ‘일곱 달의 악몽’> 외 3건**은 대학생·청년 임금체불 사례 보도로 선거 후보자 SNS 관리업무, 건설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청년들이 선거법, 현장실습 제도 악용해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한계, 관할 부서인 고용노동청의 소극적 대응 등도 함께 짚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 제도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청년 노동실태 전달한 보도입니다.

[대표 보도]

[갑질기획3] <3백만 원 준다면 현장실습은 ‘노예 생활’>(3/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tvh&oid=056&aid=0011223544>

**KBS부산의 <테마파크 짓는다더니 ‘놀이동산’...추가 개발은?> 외 2건**은 ‘집중취재’ 형식으로 롯데월드 개장, 롯데타워 건설 관련 추진 과정에서 애초 계획과 대시민 약속을 어겨온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롯데월드 개장과 관련해 교통난 위주로 보도한 타 언론사와 달리 기존 계획에 미치지 못한 시설개장, 부산도시공사가 세금으로 원형보전지까지 이 전해줬지만 쇼핑몰로 채운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 롯데타워는 9년째 지지부진한 건설 상황, 공중정원 등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계획서 제출 등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에서 계

열사만 24개 있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지만 지역 기여도는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롯데는 지역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이자, 감시대상입니다. 롯데개장, 롯데타워 계획서 제출 등 현안을 개별 뉴스로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합하여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대표 보도] <롯데타워 새 콘셉트 제시...“이 정도론 안 된다”>(3/2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7410>

**부산MBC <장애인인권운동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외 1건**은 부산MBC의 단독보도로 장애인인권운동가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해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냈고, 이후 전국 차원의 연대 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 공론화 이후 2차 가해 움직임도 짚으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아닌 관련자의 대응도 고민해 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리포팅은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포커스IN>을 통해 두 차례 짚기도 했습니다.

[대표 보도]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두 얼굴>(2/27, 시사포커스IN)

<https://www.youtube.com/watch?v=TbAUtN2X2Zw&t=2099s>

**부산MBC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기획**은 지금까지 지역의 주요 갈등 소재로만 뉴스에서 다뤄진 문화재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도시개발 갈등 문제를 다른 지역의 성공한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갈등의 해결책 모색을 시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이 기획의 의도가 향후 다른 이슈로도 잘 살려지길 바랍니다.

[대표 보도] <문화재와 재개발의 ‘공존’...방법 없을까?>(2/21)

[https://www.youtube.com/watch?v=zVLE3F3M\\_5o](https://www.youtube.com/watch?v=zVLE3F3M_5o)

**부산MBC·대구MBC 빅벙커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역을 위한 공약은 없다>**는 20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부산과 대구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게 각각 부산, 대구 공약과 그 공약을 실행하는 데 드는 예산, 예산을 마련할 방법, 이행 기간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방송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후보의 1호 공약을 통해 후보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성을 살펴봤으며, 후보별 닳은꼴 공약을 찾아보고 그중에서도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시민공약평가단’의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역을 위한 공약은 없다>(3/3)

<https://www.youtube.com/watch?v=VkWcviVjIOs>

**부산MBC <코로나19 추경 234억 날린 온라인 화상 회의실> 외 2건**은 추경 예산 중 234억 원이 들어간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 화상 회의실’이 무용지물이고, 설치과정도 의문투성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 예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이번 보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경 예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고, 언론의 예산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국구에 해당 사안을 가지고 지역에서 밀도 있게 풀어낸 문제 발굴력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대표 보도] <234억 날린 ‘온라인 화상 회의실’>(3/6, 시사포커스IN)

[https://www.youtube.com/watch?v=Nvx\\_o2zvl3U&t=1485s](https://www.youtube.com/watch?v=Nvx_o2zvl3U&t=1485s)

<끝>